

근대의 대중매체 속에 투영된 여성과 여성다움*

강소영**

<차례>

1. 서론
2. 성적인 존재로 국한된 여성 유표화 방식 - '여자' 용례 검토
3. 남성지식인들이 생각한 '여성다움'의 실체 - '여성다움' 관련 어휘들의 의미 검토
4. 남성지식인들의 '여자' 인식 양상 - '여자' 은유의 유형과 빈도 검토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신여성>이 당시 여성들의 정체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으리라는 가정을 실제 자료를 토대로 고찰하였다. 먼저 <소년> <청춘> <개벽>으로 이어지는 남성지식인의 계보를 검토하고, <신여성>은 '여성'을 '사람(미래의 지도자)'이 아닌 '여자'로만 다루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여자'용례를 검색, 당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순하다][좋다][깨끗하다]를 추출하였다. 이는 남자를 수식하는 형용사 [힘차다][굳세다]와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소비, 허영심'과 얽혀서,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역군으로 여성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다. 마지막으로 '여자'은유양상을 뽑아 통계처리하였는데, 여자는 팔고 사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으며 이는 여성의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는 논설과 대조적이었다. 이는 근대적인 여성담론 속의 여성은 남성지식인에 의해 추상화된 여성이며 따라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제를 뒷받침해 주었다.

주제어 신여성, 고빈도, 여성다움, 은유, [여자는 물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2-AL0015)

** 이화인문과학원 연구원

1. 서론

1920년대 많은 독자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던 잡지 <신여성>은 텍스트 내에 여성인물의 이야기를 초점화하였다. 그러나 여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것이 곧 당시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진정한 여성의 발화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남성 집필진에 의해 쓰인 지면이었고 남성지식인의 주도로 선진지식을 수용하였던 역사상,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투고문 중에서 몇몇 편만을 실기로 결정한 것에도 남성 집필진들의 시선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곳의 발화가 진정한 여성의 발화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여성>이 근대화가 본격화되었던 1920년대에 출간된 잡지라고 해도 여성의 의식개조와 이의 충실한 반영으로 당시 여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으리라는 가정을 실제 자료를 토대로 고찰해 보려고 한다. 먼저 <신여성>과 계보를 같이 하는 <소년> <청춘> <개벽>의 집필진의 지식인론을 기사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각 잡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들을 입력, 구축한 말뭉치자료¹⁾에서 고빈도 어휘들을 선정, 잡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을 병행한다. 그리고 <신여성>의 ‘여자’용례를 검색, 여자를 수식하는 형용사들을 정리하고, 그들의 의미를 살펴 당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가정하였던 여자의 덕목을 살펴본다. 이는 당시 잡지 내에서 여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들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의미를 부여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자’은유양상을 뽑아 통계처리한 후 지식인의 표면과 그의 무의식을 지배하

1) 잡지의 시작과 소멸을 담은 첫 호와 끝 호, 정간을 당하였다가 다시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한 시기(《소년》), 특별한 정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언급을 하여 정간을 당한 호수나 정간을 당하였다가 다시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한 시기(《개벽》) 또는 집필자가 선정한 특별한 주제들이 시리즈로 나온 특별권호(《신여성》)를 기준으로 하였다.

고 있는 의식구조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이는 근대적인 여성담론 속의 여성은 남성지식인에 의해 추상화된 여성이며 따라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성적인 존재로 국한된 여성 유표화 방식 - '여자' 용례 검토

조선이라는 중세봉건질서가 무너진 이후 근대라는 새로운 시기가 본격화되었던 1920년대 사이에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두고 가치관의 차이를 보인 다양한 지식인 집단이 있었다. 이른바 국수주의자들, 즉 유교적인 봉건질서와 전통적 지식을 고수하려는 지식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계몽담론가들, 즉 일본에 대응하여 우리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열망하였던 지식인 부류도 있었다.²⁾ 후자와 같이 애국적인 민족담론을 펼쳤던 지식인들은 <소년>과 <청춘>으로 이어지는 근대 잡지의 주요 필진-최남선, 이광수 등-과 연결되고 중첩되면서 근대 지식의 계보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들의 계몽담론은 천도교의 강력한 후원으로 발간된 <개벽>을 통해 민중들에게 전파되어 갔다. <신여성>은 바로 개벽의 집필진들이 자주적이고 부강한 국가 건설을 위한 지식인 집단 속에 여성을 포함시켜 그들의 문제와 처지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도록 한 담론의 장이었다.³⁾ 따라서 <신여성>의 집필진들의 의식구조를 살피는 일은 한국 최초의 종합 월간지 <소년>(1908-1911)부터 <청춘>(1914-1918), <개벽>(1920-

2)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홍인숙, 『근대 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의 44-49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연구대상으로 잡지를 선택한 이유는 잡지의 성격에 기인한다. 잡지는 기획취재를 통해 심화된 내용을 실을 수 있어 발간 주체의 의식을 명료하고 안정감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매체였으므로 체계화된 근대지식의 구축과 그것의 대중화라는 근대 지식인의 의식을 따라가기에 용이한 면이 있다.

1926), <신여성>(1923-1926)으로 이어지는 지식인의 지적 흐름을 읽어 내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최초의 종합잡지 <소년>은 최남선이 미래의 지도자를 꿈꾸는 조선의 소년들에게 서구 문명을 흡수하여 강력한 조선을 만들기를 염원하여 발간한 잡지이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눈에 보이는 바와 귀에 들리는 바가 남다르게 비상히 신경을 충격하여 아무리 하여도 구경꾼의 마음으로 모든 사상을 접할 수가 과연 없으며 이렇게 신경의 감수가 점점 이상하여지는 동시에 “나라로 돌아가라! 나라로 돌아가라”하는 소리가 무상시로 귀의 고막을 때리는지라. (‘발행의 기원’ 중에서)

(2) <소년>의 목적을 간단히 말하자면 신대한의 소년으로 깨달은 사람 되고 생각하는 사람 되고 아는 사람 되어 하는 사람이 되어서 혼자 어깨에 진 무거운 짐을 감당케 하도록 교도하자 함이라. (‘소년의 포부’ 중에서)

최남선이 일본으로 유학 갔을 때 눈과 귀를 자극하는 신문명에 충격을 받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돌아와(1) 소년에게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깨닫게 하고자 <소년>을 창간하였음(2)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소년>의 통계결과 고빈도 어휘의 목록에 오른 것은 ‘소년(청년)’, ‘나라’, ‘우리’, ‘세계’, ‘학교(교육)’, ‘국민’ 등이다.⁴⁾ 이러한 어휘들은 대체로 조선(‘나라’)의 부흥, 즉 신대한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년이 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다. 이들과 호응하듯 동사의 고빈도 어휘 목록 역시 [배호다(배우다)]로 대표되는 ‘보다/듣다/쓰다/얻다/가지다’ 등의 분포가 단연 돋보였다.⁵⁾ 그러나 이 잡지에서 교육의 대상은 ‘소년’이었지

4) 각 잡지의 고빈도 어휘 목록은 강소영, 『구어와 문어 자료의 실제적 연구 방법론』, 한국문화사, 2007에 자세히 실려 있어 여기서는 주요한 명사 몇 가지만 제시해 둔다.

5) 고빈도 목록(동사)은 하다, 되다, 보다, 말하다, 있다, 가다, 못하다, 쓰다, 나다, 오다, 모르다, 가지다, 듣다, 얻다, 죽다, 크다, 받다, 이르다, 만들다, 위하다, 대하다, 내다,

‘소녀’는 아니었다. 여성은 애초에 배제된 채 기획되었음은 배움의 대상으로 피터대제나 워싱턴, 나폴레옹과 같은 남성 위주의 위인을 선택하여 기재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관련 어휘의 사용례에서도 발견된다. 여자, 여성, 계집, 마누라, 아내, 부인 등 여성관련 명사들의 사용이 드물다는 점⁶⁾만으로도 집필진의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지만, 이들 용례를 토대로 검토한 내용 중 사회,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는 단 1개의 예가 굳이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아래는 여성을 성적 웃음거리로 삼은 글로, 당시 ‘여성=성적유희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3) 그런지 저런지 모르는 마누라는 그 갓옷을 입고 천연하게 집으로 가노라니 길가의 사람들이 마누라의 등을 보고는 씩씩씩 웃고 가오. 자기는 암만 생각하여도 알 수 없소. 그리 하다가 친절한 사람이 일부러 와서 등에 붙인 쪽지를 떼어주는 것을 본 즉 소경에게도 보일만한 대자로 자기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혈고 닳은 놈』이라고 주를 내었소.(소천소지, ‘혈고 닳은 사람’ 중에서)

두다, 그리하다, 배호다, 일어나다 순으로 정리되었다. 이 중에서 ‘보다, 쓰다, 모르다, 가지다, 듣다, 연다, 받다, 이르다’ 등은 신지식, 신문명을 배워서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하여는 집필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외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쓰임으로 중복접침이 많거나 (하다, 되다, 나다, 내다, 두다), 기본어휘(있다, 위하다, 대하다, -지 못하다)이며 기행문의 성격에 걸맞은 의미영역을 가진 것(가다, 오다)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6) 여성 관련 명사 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계집아이(18회)이다. 물론 고빈도 목록에서 보면 355번째로 등장하는 어휘이므로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외국 소설의 번역문(걸리버여행기)에서 돌보아주는 여자아이를 지칭하는 어휘로 사용되었을 뿐, 사회, 문화적 함의를 읽을 수 있는 어휘의 사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청춘>은 <소년>의 연장선상에서 출판된 잡지로 단지 구독의 대상 연령에서 차이가 날뿐, 만리장성 등 명승지 소개, 동물, 식물, 광물, 유명한 인물이나 서양의 놀이 소개 등 내용의 편성과정이 <소년>과 비슷하다. 따라서 고빈도 어휘 목록 중 ‘사람, 일, 노력, 사랑, 세계, 학교’ 등의 명사와 ‘하다, 되다, 보다, 알다’ 등 동사의 분포는 <소년>과 동일하였다.⁷⁾ 더구나 상태나 현상을 그리는 형용사 부분의 고빈도 어휘 목록에 등재된 ‘넓다, 높다, 작다, 많다, 크다, 있다, 없다, 다르다’ 등⁸⁾은 현재의 우리와 다른 세상, 우리가 지향할 세계를 보여주고 이를 체험한 자신의 경험을 늘어놓는 데 지면이 많이 할당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구 문물의 선택기준이나 서구문물을 완전한 우리것으로 만들기 위한 집필진들의 노력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이는 바이다.⁹⁾

7) 명사는 ‘사람, 일, 때, 말, 생각, 노력, 소리, 속, 뒤, 차, 전, 사랑, 눈, 후, 물, 길, 집, 몸, 세계와 같이 사람, 일, 노력, 세계’ 등 중복된 어휘가 보이긴 해도 완전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동사부분은 고빈도 어휘 목록의 유형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목록을 살펴보면, ‘하다(1189회), 되다, 보다, 알다(212회), 가다, 있다, 말하다, 오다, 위하다, 받다, 먹다, 모르다, 듣다, 가지다, 유하다, 보이다, 언다, 만들다, 못하다, 그리하다, 대하다, 생기다(76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지식, 신문명을 배워서 미래의 조선을 이끌 청년을 육성하겠다는 집필진의 의지를 보인 것(보다, 알다, 말하다, 모르다, 듣다, 유하다, 가지다, 언다, 만들다, 생기다)이 대부분임을 보여준다. 이 외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쓰임으로 중복접침이 많거나(하다, 되다) 기본어휘(가다, 오다, 있다, 먹다) 등이 고빈도 어휘 목록에 분포되어 있다.

8) <청춘> 4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있다(927), 없다(681), 크다, 많다(91), 그렇다, 좋다(71), 이렇다, 다르다, 어떻다, 적다, 옳다, 높다, 넓다, 작다, 이롭답다(26)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9) 다음과 같은 용례를 참조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측정하고 이를 우리의 것과 비교하였던 지식인들의 생각을 유추해 보았다.

- (1) 그네는 과연 더할 수 없는 넓고 깊고 큰 쾌락을 가졌다.
- (2) 늘 그 높은 안테스 산 눈 위에 깃들이고 기근이 자심하지 아니하면 별로 설선(주) 아래에 내려오는 일이 없느니라.
- (3) 피와 아와는 역사가 다르고 따라서 국정이 다르니 우리도 반드시 그네를 본받지

그러나 <청춘> 역시 여성은 지도자의 무리에서 배제되었다. 이를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인 청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할 때에도 남성독자를 상정하고 기술한 데서 읽을 수 있다. 아래는 남성호칭어(신사, 어른, 학생제군), 남성용기호식품(권련, 양주) 남성비하어(오입쟁이)를 사용한 예문이다.

(4) 내가 먼저 옳은 바를 행함으로 장차 만인을 교화하리니 성 있는 이 어찌 힘쓰지 않을까. 허물며 교육가나 신사 어른 네며 학생 제군은 사회의 의표를 솔선하여 사회의 구제에 학수 하여야 할지니 구제 방법은 다르미 아니라 몸소 행하여 모범을 보임이니 의복, 음식, 거처를 검소하게 하고 권련과 양주를 취하지 말고 아무쪼록 자국 물품을 써 직접 간접으로 동포의 생도를 돕도록 한다. 적극적으로는 식이사업을 진흥하며, 아울러 사회에 근 검상을 고취하여 자작자급의 인을 조성하기를 힘써야 한다.

(중략) 네가 그리 몸을 끈게 가져 오입쟁이를 배우려 함이 아니거든 고귀한 비누와 향수와 비단수건이 왜 있느냐. 너는 어이하여 귀한 서책을 읽을 줄을 모르고 호대와 놀이터에 금전과 사진을 낭비하느냐. (‘군자의 길’ 중에서)

(4)는 사회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나열하면서 금해야 할 일도 함께 말하고 있는 예문으로, 유혹에 빠지기 쉬운 물건으로 술과 담배를 들었다. 술은 자주 여자와 함께 남자의 유희의 대상으로 놓였던 것(아래 예문 5참조)으로 집필자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상으로 남자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사치, 낭비하지 말고 근검해야 함을 강조할 때도 여자와 텅굴기만 하는 오입쟁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독자를 남자로 상정함을 뚜렷하게 내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집필진의 시각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해서서는 아니 된다는 법이야 어디 있겠느냐 하겠지마는 이것은 인습에 아도하는 자의 말이 아니면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전혀 모르는 자의 말이다.

여성을 자신보다 더 못한 존재로 기술하는 아래와 같은 예문이다. 아래는 계집과 아내의 용례에서 뽑은 예이다.

(5)고기도 며칠이 못 하여 맛이 없어지고 술과 계집도 날마다 놀면 싫증이 나지만

(6)값이 싸니 놀부 내외가 치과의에게 와서 『충치를 때자면 얼마나 됩니까』 『20전으로부터 5원까지오』 『빼자면은?』 『한 개에 25전이오』 놀부가 계집더러 『그러니 빼고가는 편이 돈이 덜 들겠네』

(7)천하사를 가르치리라는 뜻을 품은 자는 먼저 그 아내를 가르쳐야 할지니

(5)는 여자를 술과 동일하게 놓고 ‘놀다’를 서술어로 사용하여 유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며 (6)은 아내를 비하여 ‘계집’으로 지칭하고 있는 예이다. (7)은 아내를 학생처럼 취급하여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는 것을 당위로 생각하는 서술어(가르쳐야 하다)의 사용이 눈에 띄는 예로, 이들 모두는 여성을 동일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집필자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 잡지 <별건곤>에서 청년을 지도하고 당국을 탄핵하고 시사비평에 앞장 선 조선 유일의 대표적 사상 잡지였다고 자평하였던 <개벽>¹⁰⁾. <개벽>은 현실문제를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타개책을 제시하는 등 독자들의 의식 수준을 개조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문제, 사회, 문화, 계급, 이상, 운동’ 등 고빈도 어휘 목록에서 전의 잡지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서 여실히 보이며, 이들 고빈도 어휘목록의 특징은 창간호 권두언「논설 세계를 알라: 시급히 해결할 조선의 2대 문제」에 잘 나타나 있다.

10) ‘개벽시대를 추억하며’, <별건곤> 7월호.

(8) 우리의 할 일은 만코 만하 매거하야 논할 수는 업습니다 만은 위선 우리의 시급문제는 오즉 두 가지 뿐이니 일왈 교육문제 일왈농촌문제이라 합니다.(중략) 교육의 보급을 위하여 군면리에 곳 교육회를 조직하라 합니다. 그리하야 군면리에 각히 학교 하나씩은 곳 설립하라 합니다. 그리하야 재산이 잇스면 잇는 대로 교육사업에 제공하고 자체가 잇스면 잇는 대로 교육장으로 인도하라 합니다. 여차하고야 우리도 남과 가티 문명의 영광을 어 들 것입니다. 행복된 생활이 머지 안이할 줄 자기합니다. (중략) 이에 나는 농촌문제 해결은 이러케 하고자 합니다. 즉 빈부문제부터 해결하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주와 소작인 문제해결이외다. (중략)

(8)에 쓰인 것처럼 당시 지식인들은 교육문제(‘문제’)는 국가에서 학교를 1개씩 더 설립하고 조선인들이 교육회를 설립하여 신문화(‘문화’)의 수입에 열성을 다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농촌의 소작인 문제를 해결(‘계급’)하기 위해 지주에게는 소작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농민에게는 농회를 조직(‘운동’)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라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이상’)까지 깔끔하게 제시한 글이 인상적이다.¹¹⁾

이러한 시대인식은 여성문제에도 이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글을 들 수 있다.

(9) 오조선인에 재하야는 기백년래-인습에 잠든 꿈을 일조에 돌파하고 소 하야도 신생활이라 하는 참신한 이름이나마 듯게 되었다. 그래도 제법 인도의 소리도 들어 보았고 평등 자유의 부르지짐도 응하야 보았고 사회문제도 나서 보았고 부인문제도 토의하야 보았다.(‘경신년을 보내면서’ 중에서)

(10) 노동문제 부인문제라함 도 필경컨대 차문제에 연결한 내면적 의의가

11) ‘문제, 사회, 문화, 계급, 이상, 운동’ 등 고빈도 어휘 목록의 의의를 찾기 위해 어휘 목록을 원용. 글의 내용을 해석해 본 것이다.

유할 것이로다.(중략)인인이 차 인격을 구유한 이상에는 하인이던지 동일한 평등의 상에 립할 것이 아니나. 연한데 왕왕히 경험상 차별상에 구속하며 혹은 형이상적 이상체를 립하여 시등 인격의 존재를 인용치 아니하는 고로 과거에 재한 제폐풍이 생하였던 것이로다. (‘문화주의와 인격상 평등’ 중에서)

이는 부인문제를 토의하였다는 지식인의 움직임을 보고(9)하거나 여성이 평등한 인격체임을 분명하게 공표(10)하여 여성을 대하는 지식인의 시선에 변화가 있음을 보인 예이다. 그러나 아래 조선인이 본 조선의 자랑,에서는 여성에게 정조의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여성을 性的 영역으로 유표화하고 있다.

(11) 자기의 정조라 하면 재산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녀이였습니다. 지금에도 어느 지방을 가던지 렬녀의 정문이나 비각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서 여자의 정조를 소중히 녀이였으며 또 여자 자신도 그 얼마나 관념이 김펫겠습니까. 나는 중국이나 미주에 잇을 때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항상 조선 여자의 정조를 자랑하였고 또 그 사람들도 항상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자의 풍기가 해이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압꾸고 뼈가 제립니다. 잊지하던지 우리는 이 자랑거리를 영구히 보존하여 남에게 수치가 되지안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녀자의 정조는 세계에 기비가 업습니다’ 중에서)

(11)은 조선인이 본 조선의 자랑,을 제목으로 하여 조선의 자랑거리 여러가지를 묶어 제시한 글로, 유독 여자에게는 정조가 강조됨을 보인 글이다.

이처럼 집필진들이 여성과 남성의 경계선을 긋고 여성을 육체의 문제로 집중시키는 남성지식인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여도 <개벽>은 여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대중잡지였음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러한 <개벽> 집필진들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지면의 창출로 이어져 <부인> <신여성>과 같이 여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를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지식을 상징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며, 지식인의 범주에 여성을 포함시켰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자, 여성, 여학생, 남자, 사랑, 번민, 결혼’ 등의 고빈도 어휘 목록을 보아도 자유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결국은 가정 내로 향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지식인과는 구별된 영역 안에서 다루어졌음은 아래와 같은 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12) 부부생활을 하는 데는 물론 ①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노동자(勞働者)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말은 곧 각기 제 직업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남의 직업에 대해서는 불간섭주의(不干涉主義)를 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일을 또 아내는 남편의 일을 간섭할 생각을 말고 다만 서로 돕고 위로해 주기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그러나 아내 되는 이는 특별히 가정밖에 나가서 사회적 직업을 갖지 아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잘 다스려 나아가는 것 아이들을 기르는 것 그것도 또한 남자가 취하는 사회적 직업보다 못하지 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가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돌보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으로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은 곧 아내는 남편의 집일을 보아주고 월급을 받아 사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도 ③가정경제로나 사회생산으로나 손실되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생활은 이렇게 할 것’ 중에서)

(12-①)은 여성도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책임져 나갈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의식이 보이는 기사이지만 이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전제였다. 결국은 ②처럼 현모양처를 여성의 이상적 모델로 용인하게 되고 더 나아가 배운 여성이 집안에 머무르는 것을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아님을 주

장(③)하여 여성의 배움의 가치를 무화해 버린다. 이는 ‘여성지식인’에서 ‘지식인’을 빼 채 ‘여성’으로만 근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래의 지식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창간된 잡지들의 특징을 고빈도 어휘 목록과 유의미한 예문들을 토대로 검토하고, 여성은 지식인 집단에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된다고 하여도 지식인은 겉다리일 뿐, 여전히 ‘여성’에만 방점을 놓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태도가 잡지의 독자를 여성으로 상정하였다고 하여도 잡지 집필진의 대부분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남성이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여성다움과 관련한 일군의 형용사 목록에서 찾아보려 한다.

3. 남성지식인들이 생각한 ‘여성다움’의 실체 - ‘여성다움’ 관련 어휘들의 의미 검토

어떤 언어를 접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개인적인 경험과 상관없이 생각의 테두리를 지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이 자신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들과의 공통된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믿기 때문이며,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신여성>에 내재한 여성만의 특성이나 성질(‘-다움’)을 추출하여 이를 ‘여성다움’으로 뽑아내어 분석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여성을 대하는 남성 지식인들의 시선을 엿보려 한다.

‘여자’ 용례를 검토한 결과, 여자를 수식하는 형용사군(참하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등), 여성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는 명사군(현모양처, 비너

스, 미인), 여성의 특징적 성격을 나타내는 관형사군(내성적, 소극적, 희생적) 등 여러 항목이 있었지만, 본고는 여기에서 여성이 가진 다양한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는 형용사군에 주목하려고 한다.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의 문법용어 '형용사'가 여성성을 연구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여성>에 실린 '여자' 용례들을 모아 그녀들을 수식하는 형용사들을 모아 보았다.

- (13) 내가 바라는 아내는 용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성 좋고 취미가 고상한 여자이니 취미가 같아야 하고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자애가 많아서
- (14) 저 상냥하고도 슬피되는 듯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눈을…….
- (15) 것처럼 다소곳하고 암전하고 또 잘생기고 정답게 생긴 여자는 이 기숙사 안 이 학교에는 다시 없을 만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 (16) 얼굴만 고아서 화려한 것만 즐기고 남편에게 천박스런 아양 부리는 여자는 물론 보기도 싫거니와

형용사의 사용양상이 제각기여서 그들 사이의 의미를 모아 간단하게 말하기가 어려울 듯하나, 각각의 구체적인 의미를 불러와서¹²⁾ 이들을 범주화하면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추적하면 몇 개의 어휘들로 한정하여 당시의 이상형인 여자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듯하다.¹³⁾

12) 이들의 의미는 당시 용례를 토대로 펴낸 조선어사전(1920, 조선총독부),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6년, 심의원)을 기준으로 삼았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예시는 큰사전(1947-57, 한글학회)을 토대로 하였다. 또한 실제 <신여성>에서 추출한 '여자'의 용례를 함께 살펴 성분분석을 시도하였다.

13) '여자'용례에는 이 외에도 고결하다, 유순하다, 우아하다 등의 형용사가 나오나, 1번 밖에 나오지 않고 또한 현재 논의 중인 단어들의 의미와 겹치는 바(순결=고결, 다소

상냥하다 성질이 싹싹하고 부드럽다.
부드럽다 억세지 않아서 곱고도 순하다.
얌전하다 행동이 곱다

어여쁘다 보기 좋다
곱다 정하다, 보기 좋다, 미려하다
아름답다 어여쁘다, 곱다

고상하다 점잖은 것(속되지 않고 훌륭)
훌륭하다 싹 좋다

순결하다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음.
맑다 깨끗하다

첫 번째는 [순하다]를 기본의미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상냥하다’는 [부드럽다]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이 셋은 ‘얌전하다’와 ‘부드럽다’의 의미망에서 공통적인 [곱다]를 기본의미로 추출할 수 있으며, ‘곱다’의 [보기 좋다]에 초점을 맞추면 ‘보는 대상’ 즉 행동이 단정하고 순한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다.¹⁴⁾ 그런데 행동의 단정함은 당시 사회에서 요구한 덕목들을 따르는 것(‘順’)이므로 첫 번째 부류는 [순하다]를 기본의미로 추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분류한 것은 [좋다]를 기본의미로 잡을 수 있겠다. ‘어여쁘다, 곱다, 아름답다’의 의 의미를 살피면, 먼저 ‘아름답다’는 ‘어여쁘다’와 ‘곱

끗, 유순=부드럽다, 고상=우아)가 있어 제외하였다.

14) ‘곱다’의 [보기 좋다]는 <조선어사전>에 기초한 바이며, [행동이 단정하고 순하다]는 <큰사전>에 따른 것이다. <큰사전>은 <조선어사전>보다 뒤에 만들어졌으며 의미의 구체성이 더 두드러지므로 ‘봄의 대상’으로 <큰사전>의 의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다'의 의미를 공히 가진 것으로, 따라서 '아름답다'는 이들 두 어휘의 상위어가 된다. 그런데 '어여쁘다'와 '곱다'는 [좋다]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결국 '아름답다' 역시 '좋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두 번째 어휘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의미는 [좋다]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는 '고상하다'와 '훌륭하다'를 살펴볼 차례인데, '고상하다'의 [속되지 않고 훌륭하다]를 고려하여 둘을 [훌륭하다]로 묶는다. 그리고 '훌륭하다'의 의미 즉 [씩 좋다]에 기초하면, 이들은 두 번째 부류의 단어들과 동일한 [좋다]에 [高]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분석하여 두 번째 어휘들의 범주 즉 [좋다] 아래([훌륭하다])로 분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순결하다, 맑다'는 마음의 여부가 차별적일 뿐 공히 [깨끗하다]를 기본의미로 하고 있다.

결국 여성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종류는 다양하더라도 이들을 몇 부류로 묶는다면 당시 남성들이 그리고 있던 여성은 [순하다][좋다][깨끗하다]로 그 속성을 나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에 자신들이 여성에게 진취적인 길로 제시하였던 자유와 평등사상의 실천자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¹⁵⁾ 오히려 과거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살아왔던 그네들

15) 이는 남성에 대한 묘사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래는 <소년>, <개벽>, <신여성>에서 추출한 '남자' 용례에서 뽑은 예이다. 이들 잡지는 미래의 지도자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당시 지식인들이 원했던 지도자상을 구현하기에 적절한 매체라고 판단하는데, 이들 용례에서는 용감, 활발, 쾌활, 튼튼과 같이 여성의 예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덕목들이 수식어로 나타나 있다.

- (1) 용감한 이 소년의 가슴은 삼같이 어지러워 암만하여도 풀리지 아니한다.(소년)
- (2) 그저 우리 소년만이라도 좀 활발하고 좀 쾌활하여 능히 남아 사방의 지를 드릴 만한 사람되기를 권하고자 함이라(소년)
- (3) 이 흥모와 가튼 활력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끊는 피를, 울어슬까?(개벽)
- (4) 나는 이 자각있는 청년은 일종의 모욕을 가지고서 대하는 이 직업인이 되어 가고(개벽)
- (5) 튼튼하고 쾌활한 사나이다운 남자(신여성)

의 어머니상과도 일치하는 면모를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집필자의 시선은 신여성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말뭉치 자료에서 ‘여자’ 용례만을 모아 신식여자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소비가 심하고 사치스러워 물질숭배 사상에라도 빠진 듯한 여인의 모습(38회)이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¹⁶⁾

(17)우산이나 다른 물품을 사는데도 실질보다도 외식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품의 견고한 것을 취하지 않고 화려한 것을 취합니다.

(18)미혼남자들 중에는 결혼 생활을 진중히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진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향락을 얻으려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고 대개 열에 이혼은 물질적 향락을 얻으려고만 쏠리는 모양이다.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다리고 다녀주면 그것만으로 족한 모양이요 더러 인격을 찾는다면 해야 될 수만 있으면 세상에 이름 있는 인물이라는 데만 쏠리는 모양이다.

(19) 세상에는 마음 맞는 아내를 맞이하여 훌륭한 살림을 한다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잣집 자식들일 뿐입니다. 돈으로 살고 돈으로 기쁘고 돈 있는 동안만 돈의 덕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중략) 며칠 못 가서 물거품처럼 될 헛 이상이요, 헛행복입니다. 그런데 조선 여자들은 부잣집 딸은 그만두고라도 빈한한 집 여자들까지도 그만한 생각을 갖는 것이 한없이 밋게 생각됩니다. 여자는 얼굴 한 가지만 잘 났으면 여기

이들 용감하다(겁이 없고 마음이 날쌔어 일을 단행하는 성질이 있다) 활발하다(움직임이 매우 생기가 있다)쾌활하다(씩씩하고 활발하다) 튼튼하다(된 품이 굳고 실하다)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미래의 지도자, 몸과 마음이 단단하여 쉽게 유혹에 굴하지 않는 남자를 원하던 집필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16) <신여성>에서 여성의 해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자유, 평등을 내세웠던 것이나 현재 신여성의 생활에서 노출된 문제점으로 소비, 사치, 허영심, 정조, 건방짐 등을 기술하고 있었음을 통계수치로 자세히 보인 것은 강소영(2007)참조.

서 저기서 일등 가는 신랑들이 손을 들고 덤벼든다. 그래서 그런 여자일수록 자존심이 크게 자라고 허영심이 늘어서 눈만 높아가다가 결국 허방다리에 빠지게 되는 일이 많다.

(17),(18)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상대자로 물질적 향락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신풍속도를 비판하는 대목으로, 마음도 행동도 전혀 ' 좋지 않은' 여인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결국 현대여성의 문제로 자주 이야기하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어, 마음 씩씩이가 전혀 좋지 않은 여성들이 자주 사회면에 오르내렸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자기의 가진 신분이나 처지 또는 실력의 여하는 돌보지 않고 어떤 우연한 덕분에 그저 잘 되려하는 그 마음성인 허영심'만을 가진, 즉 마음이 '훌륭하지 않음'을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였음(26회)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 당시 여성의 문제점으로 만혼이나 정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를 비판하는 대목이 많이 나타나는데(13회), 이는 육체의 '깨끗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좀 배웠다는 여성들의 건방짐(4)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는데 이는 행동이 '순하지 않음'에 해당한다.

결국 신여성에게 부여됐던 '新여성다움'이란 덕목을 여성들의 구체적인 행위들 속에서 살펴보면, 당시 시대를 이끌어갈 지식인들과는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금방 살펴본 여성다움의 현실적 조건 하에서는 조선을 변화, 발전시키는 데 생산적인 기여를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인을 꿈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¹⁷⁾

17) 1920년과 2008년 무한한 시간을 넘어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1920년대 제시한 여성상이 현재 대학생들의 '여성다움' 설문조사 결과와도 겹치고 있어 남성 지식인이 제시한 여성상은 일종의 고정관념,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화되어 온 여성의 모습처럼 생각된다. 그렇다면 남성지식인들은 개화하였다고 하지만 여성에게 씌워진 고정

지금까지 여성다움의 어휘군과 신여성이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남성지식인이 세웠던 여성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여성은 물질적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재현되었고 이들에게 썩어진 여성성은 역사적, 사회적인 차별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지식인들이 여성지식인에게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도 결국은 가부장적 질서와 남성위주의 도덕적 질서를 보증하는 한에서의 여성의 활동을 설정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남성들이 자신과 그녀들 간의 차이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위한 여성 즉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 속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여성들로 되돌아가는 길을 독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4. 남성지식인들의 ‘여자’ 인식 양상 - ‘여자’ 은유의 유형과 빈도 검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다.(Lakoff 1980:7) 그러나 은유는 대부분 시적 상상력과 수사적 풍부함을 살려주는 도구로 여기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은유를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은유는 일상적인 삶에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내 약점만 공격해대니’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말싸움에서 저 놓고는 무슨’ 등의 문장에서는

관념을 벗기지 못하였고 결국 여성의 문제가 물질숭배주의, 순결이데올로기 등의 언저리에서만 맴돌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는 ‘동시대에 여성들이 제시한 여성상은 어떠하였을까? 그리고 그녀들이 제시한 여성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 등의 문제의식이 해결된 뒤에야 단언할 수 있는 일이긴 하다.

[논쟁은 전쟁이다] 은유를 뽑을 수 있다. 논쟁 상대자는 나를 공격하는 적이며, 따라서 나는 내 입장을 방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상대자에게 지기도 한다. 우리의 논쟁은 많은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전쟁이라는 개념에 의해 구조화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전쟁 은유는 단지 토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역을 확장한다. 일상인들의 삶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으로 은유되기도 한다. ‘000후보 수도권에서 선전, 정부,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 ‘쇠고기 협상’ 완전 백기, 행차부 아파트 거품빼기 대작전 수행’ 등 정치, 경제, 사회면 헤드라인 기사에서 일상생활의 개념(유세활동, 정부 간 협상, 공무원 활동)이 전쟁의 개념(선전, 백기, 대작전)으로 치환되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으로 의미전이가 되는 풍경을 자주 목격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직장은 살벌함이 감도는 전쟁터로 배경을 바꾸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근대의 대중매체 속에 투영된 ‘여자’ 은유 양상을 살피려 한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자주 사용되어 이미 우리에게 관습화된 은유적 표현들을 접했을 때 우리들이 보인 기계적인 반응들을 생각해 본다면, 근대 당시 일상인들을 지배했던 여성의 가치평가는 어떠했는지를 ‘여자’ 은유를 통해 살피려 함이 여자에 대한 집필진들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¹⁸⁾

18) 어떤 한 개념의 한 측면을 다른 개념에서 이해하도록 해주는 은유의 특성상, 그 개념의 또 다른 측면들을 은폐하게 되어 은유화된 개념만이 전부인 줄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음도 인지하고 있다. 지난날 독서토론의 장인 경연을 통해서 서로의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던 역사적 사실은 토론을 축제의 장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음을 예증한다. 그러나 [토론은 논쟁이다] 은유는 논쟁의 전투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그 은유와 일치하지 않는, 그 개념의 다른 측면들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개념이 은유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구조화된다는 것을, 또 그것이

먼저 <신여성>에 드러난 ‘여자’ 은유 양상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자기의 아내라는 그 여자를 아주 사버리고 마는 셈이다.

(21) 놀고먹는 아내는 곧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 남편에게 다만 생식기(生殖器)를 팔고 얻어먹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22) 왜 그러나 하면 사내는 여자를 다섯이나 여섯을 얻어도 상관없고 여자는 그대서는 못 쓴다는 것이 남존여비라는 생각에서 우리나라의 것이오,

(23) 소위 학교 다녔다는 신여자들은 하나도 쓸 것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시어머니가 반백이나 된 흰머리를 슬슬 흔들면서 걱정이 벼락같이 내렸습
니다.

여자와 호응을 이루는 서술어 ‘사다, 팔다, 얻다, 쓰다’는 모두 물건을 선행명사구로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우선 이들 서술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몇 개의 항목으로 묶어 정리해 보았다.

동사	사전적 의미	대표의미 (빈도수)	은유양상
버리다	쓰지 못할 것을 내던지다	처리하다 (5)	여자는 물건이다
두다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다		
팔다	물건이나 노력 권리 따위의 값으로 돈을 받고 남의 것으로 만들다	거래하다 (14)	
사다	물건이나 노력 권리 따위의 값으로 돈을 주고 제것으로 만들다		
얻다	남이 그쳐 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		
주다	내것을 남에게로 넘기다		
차지하다	무엇을 점유하여 가지다	가지다 (6)	여자는 소유물이다
가지다	손이나 몸이나 마음이나 소유권의 안에 들어오게 하다		
엮어매다	여러 가지 일에 걸리어서 몸을 빼지 못하다	강제하다 (9)	여자는 미친한 존재이다
테리다	아랫사람을 몸 가까이 있게 하거나 또는 따라 다니게 하다.		
부러먹다	다른 사람을 시켜 일을 하게 하다		

어떤 특정한 방식들로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Lakoff(1980)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는 바이다.

용례 검색을 통해 나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가장 많은 은유는 [여자는 물건이었다. '버리다, 두다, 팔다, 언다, 사다, 주다'와 같은 서술어가 나온 예들이 모두 19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대상으로 표현된 여자 용례가 가장 많아 당시 여성을 재산의 일종으로 취급하였던 가부장적 질서를 은유 양상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서로 주고받는 물건처럼 여자를 취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 타인의 것과 같은 소유의 개념을 파생적으로 낳게 되어, [여자는 소유물] 은유가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된다.(6회)

(24) 사람을 차지한 남자 그들은, 또 다른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언젠든지 눈을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다.

(25) 그는 그 이튿날부터 아주 그 [여자를] 차지(所有)해 버리고 만다.

(26) 아내를 가지고 자녀를 낳고 한 집의 살림을 꾸리고 사회에 입신할 사람이 술로 하여 낭패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어휘의 사용이나 기사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켰던 이전 잡지들의 모습을 재현하듯 [여자는 미천한 존재] 은유가 나타났다.(9회)

(27) 그 전제 방법은 좀 나은 수단 방법으로 그럴 듯하게 이론을 부쳐 가지고 더 약게 전제의 그물에 여자를 얹어맨다.

(28) 당신이 행실 좋지 못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까닭인가보외다.

(29) 무엇에나 자기는 꼼짝 아니하면서 여자만 부려먹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러한 여자의 형상화와 달리 남자는 아래와 같이 주로 선택의 대상으로 표현되었다.(9회)

(30) 직접 자기 남편을 선택할 때에 재산과 가문과는 물론이고 일가친척의 번다한 여부까지 살펴보면서

(31) 자기의 이 세상 마지막 일이 그것뿐인 것처럼 전심전력을 다하여 적당한 혼처를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외에 ‘얻다’와 ‘구하다’와 호응을 이루는 ‘남자’용례가 두 번째로 분포하였다.(5번)

(32) 생사고락을 함께 할 남편을 구할 때에 술 먹는 남자를 취하겠습니까?

(33) 삼월 초승에 어머니는 순자를 서울 영성문 앞에 있는 홍모라는 기생 집에 팔아 보내고 자기는 재령 어디로 남편을 얻어 가버렸습니다.

‘구하다’는 [찾아 얻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얻다’와 ‘구하다’는 공히 [얻다]로 묶을 수 있다. ‘얻다’의 의미 즉 [남이 그저 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에 기초하면 남자 역시 [남자는 물건]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할 수 있겠으나, 아래 예와 같이 남자는 여자처럼 일정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거나 (‘두다’의 의미) 쓸모없다고 버려지는(‘버리다’의 의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임이 확실해진다.

(34) 가정 맛을 몰라 아내는 평생 친정에 두고 저 혼자 기숙사 한 방에 있어 왔다.

(35)남자 편으로 본다면 언제든지 자유로 그의 처를 버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첩을 들 수 있는

<신여성>은 여성을 대상으로 선진교육을 하려는 목적으로 창간한 잡지였고, 따라서 남성지식인들이 보여주려 하였던 것은 여자의 자유, 해방과 같은 신사상이었다. ‘여자’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수치상에서도 평등(42회), 자유결혼(38회), 자유연애(7회)는 고빈도로 분포하여 여성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적극 피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자를 둘러싼 은유체계를 짚어보면, 여성은 보통의 사람보다도 못한 물건, 동물 등으로 취급하였던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즉 당시 여자는 매매혼의 대상으로 곤장 현금과 자본으로 환산되는 존재였으며 따라서 여자의 성은 가부장 중심의 가족구조를 지탱하게 해주는 중요한 재산이었음을 읽을 수 있다. 결국, 입으로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다루어 달라는 사상을 유포시키고 있지만, 아직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의 정체를 알아챌 수도 없었던 남성지식인의 한계를 여자 은유 용례에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결론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근대문명과의 병존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기를 거쳐 근대성의 특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근대화의 지향과 추구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은 근대화 기획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근대적 지식의 대중화이며, 당시 지식은 담론의 생산자인 근대적 인쇄 매체들의 역할 안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잡지를 기획하고 집필하였던 지식인집단에 여성의 자리는 없었다. 따라서 잡지 내에 이야기되고 있는 지식들은 여성을 향한 지식으로 분류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여성을 위한 근대적 지식’을 기

술하였다고 하여도 남성 지식인에 의해 집필되어 그들의 시선에 의해 편
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생각을 여성다움과 여자 은유 양상을 통해 예증해 보았
다. 모든 텍스트는 은유를 포함한 다양한 비유들에 의존하여 글에 활력과
생동감을 부여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변과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전
달하려고 한다. 따라서 진리는 이데올로기의 한 축으로 작용하게 되고 때
때로 이데올로기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의 세계에 가라앉아 우리
를 조정하기도 한다. 근대의 대중매체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집
필진의 주관적 신념으로 기획, 편집된 책이라 해도 그것은 그들을 지배하
였던 사회규범과 전면배치되지는 못할 것이며, 따라서 신지식 신문명의
영향으로 개조된 지식인이라고 하여도 그들을 지배하였던 가치관은 은유
로 표현된 언어의 사용 양상 속에 밑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간을 지나 고정관념으로 남게 되어 후속세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근대의 출범에서부터 여성
의 배제가 이루어져 온 역사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일은 현재의 여성의 위
치를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범모, 『빈도와 언어기술, 언어정보의 탐구1』,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9.
pp.1-398.
- 강소영, 「문화지형어 사전의 편찬 가능성 검토」, 『텍스트언어학』 21, 2006. pp.1-21.
- 강소영, 『구어와 문어 자료의 실제적 연구 방법론』, 한국문화사, 2007. pp.1-317.
- 강신항, 「근대화 이후의 외래어 유입 양상」, 『국어생활』 2, 1985, pp.23-36.
-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4』, 1999, pp.1-408.
- 김형철, 「개화기 신문의 어휘 연구-제국신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 1994,

- pp.115-162.
- 김형철,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출판부, 1997. pp.1-386.
- 노양진, 나익주(역), 『삶으로서의 은유』(G. Lakoff &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서광사, 1995. pp.1-298.
-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pp.1-326.
- 민현식,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1)」, 『국어교육』 83, 1994, pp.113-152.
- 민현식,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2)」, 『국어교육』 84, 1994, pp.101-123.
- 민현식,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방법의 재검토」, 『동양학』 32, 2002, pp.257-289.
- 민현식, 「개화기 국어 변화의 계량적 이해」, 『한국어문학연구』 39, 2002, pp.47-80.
-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1-5』, 서광학술자료사, 1997. pp.1-382.
-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한국어의미학』 11, 2002, pp.161-176.
- 송 민, 「개화기 어휘 개신에 대하여」, 『어문학논총』 11, 1992, pp.41-61.
- 송 민, 「개화기의 신생활자어연구2」, 『어문학논총』 21, 2002, pp.33-77.
- 송 민, 「개화기의 신생활자어연구3」, 『어문학논총』 22, 2003, pp.1-34.
- 수유근대매체연구팀, 『(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pp.1-363.
- 신중진, 「개화기에 신생활 電 관련 어휘에 대하여」, 『한국어학』 29, 2005, pp.61-88.
- 신지연, 「<청춘>의 독자문예란 연구」, 『한국언어문학』 53, 2004, pp.485-512.
- 심광현, 「유물론적 문화지형학 구성의 전망」, 『문화과학』 1, 1992, pp.91-116.
-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1984, pp.55-84.
- 이보경, 『근대어의 탄생』, 연세대출판부, 2003, pp.1-146.
- 이상익, 『계량언어학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1, pp.1-828.
-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 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 2004, pp.1-438.
-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 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 2006, pp.1-366.
- 임경석, 「우리는 왜 <개벽>을 읽는가?」, 『역사와 현실』 57, 2005, pp.13-19.
- 전혜영, 「언어구성에 나타난 남녀 은유의 양상」, 『여성학논집』 22-1, 2005, pp.53-77.

- 정 광, 「일본어투 문장표현」, 『새국어생활』 5-2, 1995, pp.87-107.
- 조혜자, 「성 고정관념: 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 6-3, 2001, pp.107-125.
- 차혜영, 「1920년대 잡지의 재편과 타자 표상의 상관관계」, 『역사와 현실』 57, 2005, pp.49-80.
- 최수일, 「〈개벽〉의 근대적 성격」, 『상허학보』 7, 2001, pp.11-59.
- 최수일, 「〈개벽〉에 대한 서지적 고찰」, 『민족문화사연구』 27, 2005, pp.266-292.
-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략」, 『역사비평』 71, 2005, pp.356-377.
- 한기형 외, 『근대어 근대매체 근대문학 : 근대매체와 근대언어질서의 상관성』, 대동문화총서 24, 2006, pp.1-501.
- 홍인숙, 『근대 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pp.1-192.
- 홍종선, 「개화기시대 문장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7, 1996, pp.33-86.
- 홍종선 편,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3, 박이정, 2000, pp.1-468.

ABSTRACT

Woman, Womanliness showed in Modern Magazine <Sinnyeoseong>

Kang, So-Young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for testing the hypothesis that magazine <Sinnyeoseong> could not play its role of awakening women in those days to their right identity. For this, we reviewed the line of male intellectuals that continued from <Sonyeon> to <Cheongchun> and <Gaebyeok>, and discussed that <Sinnyeoseong> treated women not as 'persons (future leaders)' but only as 'women.' In addition, from terms related to women, we extracted words describing the ideal image of women in those days, which were 'mild,' 'nice,' and 'clean.' These words were contrastive to masculine adjectives such as 'powerful' and 'strong,' and along with 'waste' and 'vanity' mentioned as women's problems, these words prove that women were not regarded as workers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Korea. Lastly, we extracted metaphorical expressions of women and processed them statistic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women were objects to be purchased and sold, and it was quite contrastive to editorials emphasizing women's equality and freedom. This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women in modern discourses on women were images of women abstracted by male intellectuals and therefore they would show the difference between reality and ideal.

Key Words <Sinnyeoseong>, high frequency, womanliness, metaphor, [Women are objects]

논문투고일 : 2008. 3. 30
심사완료일 : 2008. 4. 20
게재확정일 : 2008. 5. 4